

## 제 11 회 한일미래포럼 보고서

경북보건대학교 간호과

임준현

요즘 한일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고,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공급을 중단하기 이르렀다. 그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불매운동에 나섰다.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전국에 유행하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럴 때일수록 싸움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옹고 그름을 떠나 일본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번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실 내가 일본어를 아예 못하고 영어도 잘 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화에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통역사분들이 계셔서 안심이었다. 이번 포럼에서 내가 맡은 주제는 이번 한일관계의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이다. 이 주제가 굉장히 지금 상황에 민감하고 조심스럽지만 꼭 얘기를 해보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자주 접했고 개인적으로 일본음식을 좋아해서 나에게서는 긍정적인 나라였다. 고등학교 때는 제 2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여 일본어의 기초를 배웠고, 일본어 선생님께서 일본 문화에 대해 설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일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다.

토론인원은 우리나라 학생은 5명 일본인 학생은 2명 통역사 1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강제징용에 있어 견해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몰랐던 부분과 새로 알게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값진 시간이었다.

일본 친구들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았고 미디어에서 보았던 관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과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친구들과의 한일관계에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보니 한국인 으로 써도 일본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1 회 모인 친구들과 과 함께 신사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한국의 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일본은 정말 한국과 가까운 나라 라는 점을 알수가 있었고 언어적으로 대화가 많이 통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지만 통역 하시는분들 일본친구들도 한국어를 많이 할줄알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인생에 있어 정말 값진 경험과 시간을 보낸듯 하여 다음 포럼에도 열린다면 꼭 참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포럼 진행자 여러분들께 꼭 감사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